

유럽의 전통과 미국적 교육의 모색*

이 성 호

〈한림대학교 교양교육부〉

I.

미국인들의 귀에 다소 거슬리는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의 문화적 재산 중 순수하게 미국적인(purely American) 것은 그리 많다고 볼 수 없다. 이같은 미국문화의 태생적 특징은 경우에 따라 한계로 작용하기도 하고 소중한 자산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미국교육에 있어서 유럽적인 요소와 미국적인 것을 대비시킨 본문의 제목은 다소 과장된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다. 그러나 미국문화는 유럽문화의 복사판이 아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미국은 유럽의 영향을 일방적으로 받는 문화수입국에서 오히려 유럽 및 전세계에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로 변모해왔고, 이 과정 속에서 유럽적 요소들이 미국화(Americanize) 내지 토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교육 역시 마찬가지다. 비록 오늘날 미국 교육 제도가 그 기원상 유럽의 이론과 사회 운동의 영향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으나, 이같은 유럽의 영향은 미국의 풍토에 맞게 적용되고 변형되어 왔다(Hughes & Schultz 196).

본문의 목적은 바로 유럽적 틀 속에서 형성된 미국교육이 미국적 면모를 확립하는 도정을 설명하는데 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 교육이라는 개념은 교육의 이념, 사조, 제도 등을 포함하는 매우 넓은 개념으로서, 한두 편의 연구 논문으로 이를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고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미국 교육의 몇 가지 중요한 이념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물론 미국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이질성과 미국 문화의 다원성을 고려할 때, 몇 가지 특징으로 미국 교육을 일반화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을 통해, 외부 세계로부터 유입된 교육 이론이나 제도 등이 미국화되는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미국 교육의 이념적 특징은 평등과 진보주의(progressivism)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미국적인 교육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진보주의 교육 사조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 않으리라 본다. 진보주의는 분명 미국 교육 형성기의 중요한 이념적 요소이다(Rugg 3). 한편, Paine과 Jefferson의 영향 아

* 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부설연구소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래 확산된 평등주의는 신천지에서 큰 호응을 얻는다. 미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유지 내지 증진시키는 평등의 확장은 곧 '미국적 정신(American Spirit)'으로 자리잡게 된다(Hughes & Schultz 201). 어떤 면에서 미국 학교 교육제도의 변천사는 평등 이념의 구현을 위한 노력과 투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본문은 내용상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첫 부분에서는 완전한 국가로서의 틀이 갖추어지기 전인 식민시기의 교육이 간략히 소개될 것이다. 다음으로 진보주의 교육사조의 배경 및 내용이 다루어질 것이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진보주의에 대한 도전이 교육 이념 간의 갈등 구도를 통해 소개될 것이다. 셋째로, 평등의 이념이 미국의 교육 제도, 특히 공립 학교(public school) 체제를 통해 구현되는 과정이 조명될 것이다.

본문은 시기적으로 인권운동(civil rights movement)의 폭풍이 몰아치기 전인 50년대 초반까지를 그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 이유는 50년대 후반 이후의 미국교육의 이념상 갈등은 그 양상이 매우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유럽 대 미국의 구도가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II. 초기의 교육: 전통적 교육관

이민 초기에서 독립에 이르는 기간까지의 미국교육은 그야말로 태동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미미한 것이었으며, 그나마 조직적인 교육체제의 부재 속에서 주로 가정이나 교회에 의해 주도되었다. 특히 식민 초기의 경우 학교라고 불릴 수 있는 근대적 의미의 교육기관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교육의 가장 중대한 기능은 성경이나 종교 서적 등의 독해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었다(Beale 1).

이 시기의 교육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공통적인 요소들과 지역에 따라 특수한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었던 바, 전자는 유럽의 전통과 밀접히 관련된 것이었고, 후자는 식민지 정착자들의 국적, 문화, 종교 그리고 지역에 따른 기후 혹은 지리적 특성과 연관된 것이었다(Meyer 18). 여기서 지역에 따른 특수성을 남부와 중부 그리고 북부로 나누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규모의 농업이 주산업이었던 남부에서는 교육을 순수하게 사적인(private) 일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주정부가 교육을 주도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교육을 받을 만한 여유가 없는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자선 형태의 교회학교 교육이 있었으나, 남부인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과 권한은 부모와 가정에 있다고 간주하였던 바, 여유있는 계층에서 행해지던 교육은 주로 가정교사(tutor)에 의한 개인지도의 양상을 띠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시기의 남부를 교육에 대한 자유방임(laissez-faire) 지역으로 부르기도 한다(Rippa 25).

한편 중부에서 역시 학교교육은 성행하지 못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이 지역이 갖는 문화적, 종교적 그리고 민족적 다양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온 상이한 교파의 추종자들이었기 때문에 상호간에 공통적인 연대나 사회적 응집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따라서 교육은 각 교파의 이해나 원리 등을 토대로 하여 실시되는 교구중심(parochialism)의 교육이었다(Ibid. 28).

북부의 경우는 남부나 중부에 비해 비교적 체제를 갖춘 학교교육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New England라는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의 정착자들은 거의가 영국으로부터 이주한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Calvin의 기독교관을 신봉하고 있었다. 이같은 민족적 혹은 종교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북부는 정교일치의 체제를 갖추게 되는 바, 교회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은 곧 국가의 후원과 보조를 받는 교육이었다. 이러한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신앙심의 견지를 위한 성경의 독해였으며, 이에 따라 읽기와 쓰기 그리고 약간의 셈 교육이 강조되었다. 한편, 교육의 방법적 측면을 살펴보면, 이 시기의 교육관에 따르면 아동은 타락의 불씨를 내포하고 있는 존재로서 부단한 단련과 훈육만이 이같은 타락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에 대한 외적 자극이나 통제, 그리고 교사의 권위 등이 중시되었다(Ibid. 32).

이상에서 보았듯이 초기 미국교육은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목적이나 내용 그리고 방법의 측면에서 유럽의 전통적인 교육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즉, 교육의 목적은 종교적이었고, 내용은 읽기, 쓰기, 철자법, 간단한 셈 정도의 매우 기초적인 것이었으며, 교육 방법 또한 이해나 표현과는 무관한 단순한 암기에 의존했는데 이에 따라 교사의 주된 역할은 학생들의 암송을 교정해 주는 정도였다(Beale 7).

또한 이 시기의 교육은 기존의 사회적 질서를 영속화하는 도구로 기능한다는 점에서도 전통적 색채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교육의 중요한 사회적 기능 중의 하나는 기존 체제의 유지 및 존속이다. 그러나 식민 시기 미국 교육의 경우, 차별화된 교육기관을 통해 당시 존재하던 불평등한 계급 구조를 고착화시켰다는 지적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린다(Curti 23-4). 남부의 경우 대토지 소유주의 자녀들은 사립학교에 다니거나 가정교사에 의해 교육을 받는데 비해 빈민층의 자녀들은 자선사업 차원에서 실시된 최소한의 교육밖에 받을 수 없었다. 또한 북부에서는 유산층의 자녀들은 엘리트 교육 과정인 문법 학교와 대학에 다닌 반면 빈민층의 자녀들은 직업 준비를 위해 도제 교육을 받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식민 시기의 미국 교육의 특징을 권위주의적인 외적 통제 및 훈육(discipline), 그리고 불평등으로 규정짓는 것이 지나친 단순화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본문의 주제가 되는 진보주의와 평등은 이같은 전통적 특징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본문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상의 대립을 낡은 것과 새 것의 구도로 규정하고, 낡은 것으로부터 새

것이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새 것에 대한 반작용 등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결론에서 재론될 것이지만,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할 점은 이러한 대립을 선악의 대결로 파악하는 것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는 아니라는 것이다.

Ⅲ. 진보주의 교육사상

1. 배경 및 특징

소위 진보주의(progressivism)라고 명명되는 교육사조를 가장 미국적인 교육이념으로 보는데는 그리 많은 이견이 없다. 그러나 진보주의는, 엄밀히 말하자면, 원래 유럽산 종자를 미국의 토양에 맞게 개량한 것이다. 그러면 먼저, 진보주의 사상의 탄생에 영향을 미친 유럽의 지적 배경에 관해 살펴 보기로 한다.

우선 멀게는 유럽의 계몽사상을 들 수 있다. 이는 과학과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인간의 운명은 신에 의해 예정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해 나아간다는 믿음을 가리킨다(Rippa 44). 이와 아울러 Rousseau의 자연주의 사상을 빼어 놓을 수 없다. 그는 인간의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자연의 상태를 왜곡하거나 억압하는 인위적인 힘을 거부하였다. 이 이외에 교육을 개인적 발달의 과정으로 보는 Pestalozzi, 지식의 기초로서의 인간 경험에 대한 자연주의적 접근을 시도한 Herbart, 그리고 아동의 관심과 경험을 중시했던 Froebel 등의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다(Hughes & Schultz 181-90). 이와 아울러 Darwin의 진화론 또한 진보주의의 중요한 배경이다. Darwin의 이론을 사회에 적용할 때, 사회 역시 개체와 마찬가지로 진화한다는 것이 바로 진보주의자들의 신념이다.

한편, 교육사조로서의 진보주의의 붐은 학생들에 대한 외적인 통제와 훈육 그리고 암기를 위한 반복 훈련 등을 강조하는 유럽의 전통적 교육관에 대한 반발에서 찾을 수 있다. 진보주의자들에 의하면 아동은 단순히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한 세계를 가지는 독립된 존재이다. 따라서 참다운 교육이란 아동이 자라면서 각 단계에서 아동의 생활을 충실히 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은 곧 성장과 동일시되는 것이다. 훌륭한 교사는 아동의 필요나 관심(interest)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돕는 사람이다. 진보주의는 이렇듯 교사의 권위보다 아동을 우선적인 위치에 놓는다는 점에서 종종 아동중심 교육사조라 불리기도 하고, 아동의 현실생활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생활적응교육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이러한 진보주의에는 그 배경에서 이미 암시된 몇가지 중요한 원리가 전제되어 있는데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remin, a 99-100). 우선 진보주의자들은 인간과 사회

의 진보에 관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진보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변화를 뜻하는 것인데 진보주의자들은 변화가 바로 자연의 법칙이라고 본다. 이들은 변화 중에서도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이러한 개선은 곧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교육은 개인과 사회를 향상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이 이들의 견해이다.

다음으로 진보주의자들은 교육의 현재성을 중시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에게 있어 교육이란 현재와 격리된 과거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가시화되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현재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얻어지는 문제해결력의 누적적 재구성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즉 지금의 당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의 삶이 그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의미있는 것이 될 수 있으며, 이같은 과제 수행을 통해 미래의 삶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진보주의자들의 견해이다.

이와 아울러 진보주의자들의 교육에 관한 민주적 신념을 지적할 수 있다. 진보주의 교육에서는 학습자 개인을 매우 중요시한다. 학습자들의 관심과 필요를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을 때, 곧 창조적 지성 그리고 자유로운 지성이 함양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는 교육의 과정(process)에 대한 민주화라는 발상이다.

진보주의를 논함에 있어 빼어 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소는 곧 경험이다. 여기서 경험이라 함은 우선 학습자가 소극적인 관찰자(spectator)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participator)의 입장에서 교육에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보주의 교육이론에서 성장이라 함은 곧 경험의 계속적인 재구성을 가리키는데, 이는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경험의 재구성과 재조직은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행위의 결과를 비판적 사고의 과정을 통해 검토하고, 이 과정을 통해 이제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보다 확충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가 곧 Dewey의 '반성적 경험(reflective experience)'이며 이는 문제해결력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Dewey 176).

이제까지 논의된 진보주의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교육은 삶 그 자체이며 삶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로 학습은 반드시 학습자의 관심이나 욕구와 직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은 원래 외부로부터 강요되는 일에 저항할 뿐 아니라 자신의 흥미와 관련된 학습을 하고자 하는 자연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구체적인 교과 내용보다 문제해결력의 증진이 교육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 보다는 경험을 관리하고 새로운 삶의 사태에 대비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넷째로 교사의 역할은 지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성장을 도와 주는데 있다. 끝으로 학교는 경쟁보다 협동을 강조하고 격려해야 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진보주의를 순수하게 미국적인 교육 사조라고 보는데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럽의 지적 혹은 문화적 영향 아래서 탄생된 철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의 민주화, 개성의 존중과 다양성의 인정, 학교의 사회적 책무 그리고 교육을 통한 사회 개선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진보주의 사조는 분명 유럽적 요소들을 체계화하여 미국적 교육의 초석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2. 도전과 갈등

진보주의는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된다. 교육내적으로는 소위 고전교육이나 교양교육을 강조하는 입장으로부터 사회적 전통과 문화적 유산을 무시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교육외적으로는 경제 대공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나이브한 낭만주의요 개인주의라는 공격을 받는다. 결국 진보주의에 대한 도전은 크게 이론적인 것과 상황적인 것으로 구별될 수 있다. 이 중 상황적인 도전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1) 경제대공황: 환상의 종말

1차 대전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정치적, 외교적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의 위치를 확고히 한 미국은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온갖 장미빛 꿈으로 젖어 있었다. 진보주의 역시 이러한 낙관적 사회분위기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그러나 1929년 10월 24일 뉴욕의 증권가에는 예기치 못했던 대재앙이 찾아왔다. 그것은 바로 주가폭락이었다. 이 주가폭락을 기점으로 하여 미국경제는 헤어날 수 없는 파멸의 심연으로 침잠하는 듯 보였다. 경제대공황으로 인해 1930년대 초반의 미국교육은 참담한 상태 속에 있었는데 많은 학교가 폐쇄되고 교육의 기회가 감축되는 한편 교과목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지나치게 낭만적이고 낙관적인 진보주의에 불만을 품은 일부 급진적 교육 이론가들의 등장을 초래하는 바, 이들은 소위 '사회재건주의자(social reconstructionists)'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들은 경제적 파탄의 원인이 무계획하고 무절제한 자본주의와 탐욕스럽고 사악한 자본가들에게 있다고 보고, 새로운 경제체제 즉 계획경제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이들은 진보주의의 점진적인 사회발전 이론을 배격하고, 사회발전은 혁신적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며 교육은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회 질서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사회의 혁신을 위해 이들이 제시한 대안들은 상당한 정도 사회주의적인 것이었는데 이런 이유로 40년대와 50년대의 우익진영에서는 30년대의 미국 공립학교가 공산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사회재건주의는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퇴조의 길을 걸었으며 어쩌면 미국의 교육사조 중 가장 단명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미국 사회의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자유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차피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사회주의 체제는 미국

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었을 것이다.

경제 대공황은 분명 학교를 매개체로 한 사회적 진보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진보주의 교육사조의 기본 원리가 송두리채 부정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같은 시련을 통해 진보주의자들은 학교 교육의 사회적 책무를 더욱 강조하게 되고, 사회의 병리 현상과 구조적 모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쏟게 된다. 즉, 진보주의의 강조점이 아동중심에서(이에 대한 신념은 포기하지 않은 채) 사회중심으로 이동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향존주의와 본질주의: 전통의 도전

진보주의에 대한 또다른 도전은 교육 내부로부터 나왔다. 이들은 각각 향존주의(perennialism)와 본질주의(essentialism)라고 명명되었는데 양자간의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진보주의를 향해 하찮은 내용을 가르치고 아동을 방임하는 반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요 감상주의(sentimentalism)라고 비난하였다(Meyer 265).

향존주의자들은 진리란 영원 불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인간의 특성 중 지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으며, 교육의 임무는 이러한 지성의 함양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인간의 지성이란 자유인문교과를 통해 계발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Orstein & Levine 202). 향존주의자들은 변화를 추구하는 물질주의, 과학에 대한 지나친 맹신 등이 인간의 상실과 현대문명의 위기를 초래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며,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이라고 보고 이를 위해 지성의 계발과 도야에 힘을 쏟을 것을 역설한다. 또한 이들에 따르면, 인간성이란 시대나 사회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항상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길러주는 교육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해야 한다. 이들은 자유로운 지성의 계발은 인류의 위대한 지성을 담고 있는 고전과의 만남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보다는 사고력을 중시하는 진보주의는 이들의 눈에 부적합한 교육이론으로 비춰졌다.

다음으로 향존주의는 아동중심교육을 배척한다. 향존주의자들은 이성을 인간의 최고의 속성으로 보고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고 이성을 계발하는 과정을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는데, 이성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아동들에게 교육 경험의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본질주의 역시 불변하는 문화의 정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향존주의의 진리관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Ibid. 204). 그러나 본질주의자들은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모두를 인정하고 불변하는 것과 변화하는 것을 구분한다. 또한 향존주의의 교육내용이 인문적 고전인데 비해 본질주의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간주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질주의는 진보주의와 향존주의의 절충적 입장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필자

의 의견으로는 향존주의 쪽으로 경도되어있음이 분명하다.

본질주의는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기초교과와 문화의 이해에 필수적인 주지교과의 가치를 강조하고, 창작교과와 직업교과 그리고 과외활동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경시한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주도권을 역설하고, 개인적 성장이나 발달보다 사회의 문화유산을 중요시한다.

경제 대공황의 경우와는 달리 향존주의나 본질주의의 진보주의에 대한 도전은 그 기본 전제 및 원리에 관한 것이었다. 물론 이같은 도전이 당시 진보주의의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지 모르나, 이는 그 후 계속되는 진보주의에 대한 공격의 전조였던 셈이다. 실제로 진보주의는 '40년대와 '50년대에 걸쳐 지적 훈련을 경시한다는 비판에 봉착하게 되며, 이러한 비판의 강도는 1957년 Sputnik호 발사와 함께 극에 달한다. 결국 이 시점을 계기로 하여 '진보주의'라는 용어는 미국 교육의 전면에서 퇴각하게 된다(Cremin, a 338-49). 그러나 이것이 미국적 교육 이념으로서의 진보주의의 사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 교육의 유럽적 전통으로의 무조건적인 회귀를 암시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오히려 진보주의의 유산은 '60년대 이후 보다 세련된 형태로 계승되어 미국 교육의 난제들을 푸는 데 기여해 온 바, 이에 관해서는 차기년도 연구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IV. 평등교육의 구현

1. 공립학교의 탄생과 확산

미국의 많은 교육학자들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립학교 교육과 민주주의 간의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하며, 공립학교 교육을 기회 균등의 가장 중요한 장치로 간주한다(Lee 117-9). 그렇다면 이같은 공립학교는 언제 어떤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는 것일까?

일부 역사가들은 공립학교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식민 초기의 New England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특히 50가구 이상의 마을에는 교사를 임명토록 하고 100가구 이상인 경우 문법학교를 설치토록 하는 1647년의 Massachusetts의 주법을 공립학교 제도의 중요한 초석으로 간주한다(Rippa 38).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식민지 북부의 교육은 궁극적으로 낡은 체제와 전통을 유지하고 영속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원리에 기반을 둔 공립학교 교육제도의 모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Spring 2).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공립학교의 전통은 식민 시기 교육의 비민주적인 목적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즉, 미국적 공립학교 제도의 수립을 위해 식민 시기의 교육적 유산을 청산하는 것이 필연적이었던 것이다.

1647년에 제정된 법이 공립학교 제도의 법적 효시가 되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립학교를 New England의 교육적 전통선상에서 보는 시각에는 무리가 있다. 공립학교의 탄생은 식민 시기보다 훨씬 복잡한 사회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이념과 이익간의 경쟁과 갈등을 배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Cremin은 공립학교의 기원을 정치적 민주화, 평등의 쟁취를 위한 투쟁,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인간관 그리고 미국적 민족주의의 부상 등으로 설명한다(Cremin, b 1-18). 즉, 참정권의 폭과 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에서 보다 현명하고 효율적인 정치적 의사결정을 위해 참정의 주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사회 주변층의 평등에 대한 욕구가 교육의 기회 확대로 표출되었다. 또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합리적인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했으며, 끝으로 미국인으로서의 국가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교육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1850년에 탄생된 공립학교 체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욱 확산되고 발전되어 왔다. 물론 공립학교가 심각한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지만, 이는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교육의 질적 저하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한편, Cremin이 열거한 요인들이 공립학교의 탄생과 밀접히 관련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공립학교 체제를 유지하고 확장시키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역시 평등의 이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 사회에서 평등 교육에 대한 요구는 초등 교육 뿐만 아니라 중등 및 유치원 교육 그리고 고등 교육에까지 확산된다(Butts & Cremin 422).

물론 이같은 공립교육제도가 미국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평등성, 보편성, 무상성, 의무성 등의 특징으로 대표되는 현대 교육의 공통적인 체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공립학교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단선형 교육 체제(single-track system)를 채택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초기 단계에서 장래에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고등교육의 성격과 기회가 결정되는 유럽식의 복선형 체제와 명확히 구분된다(Ibid. 564). 단선형이 복선형보다 우수한 교육제도라고 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평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볼 때, 전자는 분명 후자보다 진보된 제도이다.

2. 또 다른 해석

위에서 필자는 미국 공립교육의 확산 및 발전의 원동력으로 평등 교육에 대한 요구를 제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확산과 발전의 과정이 사회적 합의(consensus)를 바탕으로 순탄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은 결코 본문이 주장하는 바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립학교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교육에 관련된 이익 집단들 간의 경쟁과 갈등이 존재했다. 그러나 공립교육이 탄생하고 확대되어 왔다는 것은 평등 교육의 이념이 어느 정도나마 구현되었다

는 증거라는 것이 필자의 관점이다.

이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해석도 대두된다. 미국 교육에 있어 공립교육의 확산과 발달은 평등의 이념과는 무관하여, 오히려 자본가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들에 의해 계획되고 주도된 현상이라고 보는 견해이다(Spring 154-6). 이를 다소 수정한 견해도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가 집단은 과학성과 합리성으로 무장된 학교를 통해 사회를 통제하고 설계하며 변화시키는데, 사실 과학성이나 합리성 등은 그들의 기득권을 포장하는 가면이며 교사나 교육전문가들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층복이라는 주장이다.

이상의 견해들은 교육의 장에 있어서의 권력 투쟁과 갈등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학교를 공동선과 합의의 개념으로 보는 시각에 비해 훨씬 현실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은 교육을 받는 혹은 요구하는 사람들의 주체성과 자율성 그리고 자유 의지를 무시한 기계론적 주장만을 반복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재삼 강조하거니와, 미국 사회에서 공립학교의 탄생과 확산이 평등 이념의 구현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평등에 대한 강한 요구가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은 계급적 색채를 띤 유럽식 전통교육으로부터 탈피하여 독자적인 교육체제를 갖추게 된다.

V. 논의 및 결론

이제까지 필자는 본문을 통해 유럽의 전통에서 출범한 미국 교육이 미국적 틀을 확립하게 되는 과정과 그에 대한 반발과 비판을 소개하였다. 본문은 '50년대까지의 미국적 교육의 특징을 진보주의와 평등교육의 틀을 통해 제시하였다. 끝으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진보주의에 대한 논의를 보충함으로써 본문을 맺고자 한다.

우선 진보주의에 대한 항존주의 및 본질주의의 비판을 유럽적 전통의 부활로 볼 수 있는가? 다음으로 이같은 거센 도전에도 불구하고 진보주의가 비교적 긴 수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끝으로 유럽적 전통과 미국적 교육사조를 과연 선과 악의 구도로 비교할 수 있는가?

첫번째 질문부터 시작하면, 항존주의와 본질주의는 원리상의 상이점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지식의 강조, 교사의 합법적 권위 인정, 외적통제와 단련 및 연마의 중시 등의 측면에서 유럽의 전통적 교육과 많은 공통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사조의 신봉자들은 왜 이 사조들이 진보주의에 비해 온당한 교육관이라고 생각했을까? 추정컨대, 이들은 유럽의 미국에 대한 문화적 우위를 인정하고 그같은 문화적 우위의 원인을 유럽의 전통적 교육에서 찾으려한 것 같다.

다음으로, 진보주의의 강인한 생명력의 원인으로 무엇보다도 진보주의가 당시 미국이 처한 상황에 매우 적합한 사상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위대한 국가의 생성을

꿈꾸는 신생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교육을 통한 개인과 사회의 발전이라는 진보주의자들의 구호는 매우 호소력 있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향존주의나 본질주의의 도전이 일반인들에게 너무 난해하고 고루하게 투영되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진보주의 교육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다는 사실도 진보주의의 장수에 기여했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미국교육은 적어도 50년대 초반까지 외국으로부터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경제대공황은 미국 내부적인 문제였으며 그나마 진보주의에 타격을 가하기에는 사태가 너무 빨리 수습되었다).

끝으로, 과연 (많은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듯) 유럽의 전통적 교육관은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이며 착취적인 것이며, 따라서 현대 사회에 부적절한 교육관인가? 교육은 아동의 흥미에 직결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진보주의 교육 원리는 오해를 빚어왔다. 이는 교육의 계획이나 내용 혹은 가치 등을 결정함에 있어 학습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 결코 학습자가 교육의 전과정에서 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게다가 교육에는 반드시 단편과 연마의 측면이 존재한다. 교육은 모든 학습자에게 의미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재미만을 수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진보는 양식있는 지식인들의 전유물이고 보수는 탐욕스러운 반동 세력의 아집이라는 식의 이분법은 교육을 설명하는데 있어 매우 위험스러운 발상이다. 왜냐하면 교육은 그 속성상 보수적이기 때문이다.

구호상의 진보주의는 1957 Sputnik호 발사를 계기로 미국교육의 무대에서 퇴장한다. 그렇다고 진보주의의 업적이 송두리째 사라진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미국교육의 역사 속에서 빛나는 전통으로 기려져 왔다. 그러나 미국교육이 심각한 위기위식을 느낄 때마다 그 방향이 유럽적 전통으로 선회했다는 사실은 향후 미국교육의 흐름을 예측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REFERENCES

- Beale, H. K. *A History of Freedom of Teaching in American Schools*. N.Y.: Octagon Books, 1974.
- Butts, R. F. & Cremin L. A. *A History of Education in American Culture*. N.Y.: Henry Holt and Company, 1953.
- Cremin, L. A. a. *The Transformation of the School*. N.Y.: Vintage Books, 1964.
- _____ b. *The American Common School*. N.Y.: Columbia Univ. Press, 1951.
- Curti, M. *The Social Ideas of American Educators*. Paterson, N.J.: Littlefield, Adams & Co., 1959.

- Dewey, J. *Democracy and Education*. N.Y.: MacMillan Co., 1952.
- Hughes, J. M. & Schultz, F. M. *Education in America*. N.Y.: Harper & Row, 1976.
- Lee, G. C. *Education in Modern America*. N.Y.: Henry Holt and Company, 1957.
- Meyer, A. E. *An Educational History of American People*. N.Y.: McGraw-Hill Book Company, 1957.
- Ornstein, A. C. & Levine, D. U. *Foundations of Educ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1.
- Rugg, H. *Foundations for American Education*. N.Y.: World Book Company, 1947.
- Rippa, S. A. *Education in a Free Society*. N.Y.: Longman, 1988.
- Spring, J. *The American Schools*. N.Y.: Longman, 1986.